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은 18,905건이었고 554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7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명·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붕괴위험 및 낙하위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보건상의 조치 준수는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지는 산업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사고위험 유형과 위험요인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시설물(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개구부덮개,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업 중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실수는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엄청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동근톱, 교류아크용접기, 연삭기 등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작업중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합니다.

건설현장은 특성상 공정이 수시로 바뀌어 유해·위험요인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내에서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상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밀폐공간내 도장, 방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독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유해·위험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의 정리·정돈을 생활화 합니다.

건설현장의 정리·정돈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작업 공구나 가설자재, 물품 등이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출물에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안전표지판을 게시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경고·금지·지시·안내표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보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등바리, 비계 조립·해체 및 발파공사 등 정해진 작업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전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보호구 착용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